

## 엘리엇, 엔트로피, 그리고 쓰레기: 『황무지』와 『네 사중주』의 생태학적 읽기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시작하는 말

T.S. 엘리엇(1888-1965)은 영문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다. 샘슨은 『케임브리지 영문학 역사』의 16장에서 20세기 중반을 다루면서 이를 「엘리엇의 시대」라고 제목 붙이고 엘리엇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1)</sup> 이는 샘슨이 엘리엇을 20세기 영문학사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엘리엇은 20세기 전반부에 영미문학계를 풍미한 시인, 극작가, 비평가이다.

그에게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전통에 대한 집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을 파괴하여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작업이다. 『황무지』는 그의 이러한 성향 모두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의 『네 사중주』

---

1) George Sampson, *The Concise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Chapter XVI. The Age of T.S. Eliot, pp. 841-938.

또한 다른 관점에서 그의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서도, 또한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해악을 간과하지 않았다. 20세기는 그에게는 새로운 시대였다.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대표되는 20세기는 그러나 편리함과 함께 공해(公害)와 오염(汚染)이라는 해악을 가져왔다. 그는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이 같은 해악을 직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황무지』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충격적인 묘사라면, 『네 사중주』는 이 같은 해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밀튼이 『실낙원』과 대안적인 『복낙원』을 썼다면, 엘리엇은 『황무지』와 『네 사중주』를 썼다고 말할 수 있다. 엘리엇의 이 두 장시들을 20세기라는 탈/산업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쓰레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표이다.

## 2. 과학 기술의 발전과 엔트로피의 증가로서의 쓰레기, 그리고 『황무지』

엘리엇 자신이 『황무지』는 “사회 비평”이 아니라 “한껏 개인적인 푸념을 운율에 맞춰 적은 것”<sup>2)</sup>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 텍스트를 사회 비평으로 읽지 않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 텍스트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함의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엘리엇 자신이 『황무지』의 팩시밀리 본(本)에서 이 시가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sup>3)</sup>이 아니라고 천명한 것과는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이 시 텍스트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분명한 비판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은 이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수많은 쓰레기 이미지에

2) “a piece of rhythmical grumbling,” Eliot, *The Waste Land: A Facsimile*, p. 1. 이 후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Facsimile로 표기함.

3) “criticism of the contemporary world,” Eliot, Facsimile, p. 1.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엘먼은 이 시 텍스트를 가리켜 “영문학에서 가장 역겨운 텍스트 중의 하나”<sup>4)</sup>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무지』는 이 시가 선언하는 것, 즉 쓰레기에 관한 시이다. [중략]. “쓰레기 「나라」”는 두건을 쓴 무리들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떼지어 걸어 가는 천둥치는 사막일 수도 있다. 그러나 [쓰레기 나라는] “쓰레기 장(場)”이거나 피폭장(被爆場)이거나 공터일 수도 있다. [중략]. [쓰레기 나라는] 중심 붕괴를 미리 보여준다. 이 시는 도시 쓰레기, 도시 생활 찌꺼기의 이미지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예로는] “빈병, 샌드위치 찢던 종이, 명주 손수건, 마분지 상자, 담배 꽂초” 등이다. [중략]. [이 시에 나타나는] 낙태, 찢어진 손톱, 썩은 이, 그리고 “여성 특유의 냄새”는 육체의 부패뿐만 아니라 문화의 퇴폐를 상징한다.<sup>5)</sup>

엘먼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암스트롱은 “『황무지』에는 [중략] 경제와 신체적 쓰레기의 담론이 뒤섞여 있다”<sup>6)</sup>고 말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 그는 “『황무지』는 이 시 자체가 묘사하는 쓰레기와 문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다”<sup>7)</sup>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암스트롱은 이 시에 나오는 역겨운 이미지

4) “one of the most abject texts in English literature,” Ellmann, *The Poetics of Impersonality*, p. 93.

5) “*The Waste Land* is about what it declares — waste ... The ‘waste land’ could be seen as the thunderous desert where the hooded hordes are swarming towards apocalypse. But it also means ‘waste ground,’ bomb sites or vacants lots ... it foreshadows the dilapidation of centrality itself. The poem teems with urban waste, butt-ends of the city’s days and ways: ‘empty bottles, sandwich papers, / Silk handkerchiefs, cardboard boxes, cigarette ends’. ... Abortions, broken fingernails, carious teeth, and ‘female smells’ signify the culture’s decadance, as well as bodily decrepitude,” Ellmann, *The Poetics of Impersonality*, p. 93.

6) “In *The Waste Land*, the discourses of economic and bodily waste ... merge,”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69

7) “*The Waste Land* remains a text with a troubling relation to the waste it

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한다.<sup>8)</sup>

1. 신체 부위 — 더러운 귀, 손, 발, 이(齒), 벌린 무릎, 뺨, 머리카락
2. 옷 — 내의
3. 장소 — 죽은 땅, 사막
4. 동물 — 전갈, 박쥐
5. 행위 — 강간, 낙태, 성교
6. 행위자

이 시에 나오는 이처럼 많은 역겨운 것들에 대한 묘사는 단지 엘리엇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 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파운드의 수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이 시에 나오는 쓰레기 문제가 엘리엇과 파운드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편집자로서의 파운드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쓰레기는 현대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티치가 “에즈라 파운드가 『황무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 시는 다른 대안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sup>9)</sup>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시 텍스트가 쓰레기로 덮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비평가는 암스트롱 하나만이 아니다. 이 시 텍스트에 이처럼 많은 쓰레기와 역겨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엘먼의 지적처럼 단지 현대의 풍경을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의 퇴폐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시에 나오는 쓰레기가 이 같은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엘리엇이 왜 이 시를 온통 쓰레기 이미지로 뒤덮었을까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

---

describes,”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70.

8)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70.

9) “[I]f Ezra Pound cut the ‘waste’ from *The Waste Land* in editorial excision, the poem itself offers no alternative world,” Tichi, *Shifting Gears*, p. 71.

문에 대한 해답은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이기도 하다. 『황무지』에서 쓰레기를 읽는다는 것은 따라서 이 시 하나만을 읽는 좁은 의미의 해석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좀 더 큰 범위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쓰레기 텍스트인 『황무지』를 읽으면서 이와 연계된 현대 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에 나오는 두드러진 이미지인 쓰레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은 서양의 기술 문명의 발달에 대한 이해(理解)이다. 1760년 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산업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생산성의 제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시장에 대한 쟁탈전을 야기한다. 이 시가 발표된 해가 1922년이니,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이 끝난 후의 유럽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1차 세계 대전은 바로 이 같은 서양의 기술 문명의 발달이 야기한 유럽 열강들 사이의 시장 쟁탈전이 무력 충돌로 나타난 것이다. 이 시에는 이 때에 쓰이던 산업 생산품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세단차, 컴비네이션 속옷, 스타킹, 속옷, 코르세트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또한 타이피스트라는 직종이 생긴 것을 보면 타자기 또한 크게 보급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생활용품들은 일회성(一回性)과 소모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이전의 물건들이 비교적 항구적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면이기도 하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건들은 내구성이 아닌 마모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계속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인 상품 생산의 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 발생의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구조는 또한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은 농경 사회에서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적인 시간과는 대조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산업 사회에서는 배설물이기 때문에 처치 곤란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인분뇨(人糞尿)와 같은 배설물도 농경 사회에서는 거름으로 재활용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져 쓰레기의 발생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산업 사회의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과 농경 사회의 순환적인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의 제사(題詞)에 나오는 쿠마의 무녀(巫女)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 같은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인간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문제는 삶과 죽음이 서로 순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본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에 대한 생각 없이 단지 삶만을 추구한 나머지, 죽지 못하는 삶 속에 갇히게 되어 결국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은 셈이다. 쓰레기 또한 직선적인 시간 속에 갇혀 순환의 고리 속으로 편입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농경 사회에서의 분노는 단순한 쓰레기로만 머물지 않고 거름과 퇴비가 됨으로써 순환의 고리 속으로 편입되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서의 쓰레기는 순환의 고리 속으로의 편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물질(公害物質)인 쓰레기로만 남는다.

이제 기술 문명의 발달과 쓰레기 발생의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자. 언뜻 보면 기술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 걸까? 열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열역학에는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이 두 법칙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제1법칙), 엔트로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제2법칙).<sup>10)</sup> 여기서 엔트로피는 “더 이상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수단”<sup>11)</sup>이다. 따라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유용한 에너지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기술 문명의 발달은 곧 무용한 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오염과 공해의 다른 말인 쓰레기의 증가를 의미한다.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활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처럼 고정적이고 한정된 에너지를 순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직선적인 시간관이 순환적인 시간관으로 바뀌어,

10) 리프킨, 『엔트로피』, 50쪽.

11) 리프킨, 『엔트로피』, 51쪽.

에너지를 순환시키지 않는 한 엔트로피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리프킨에 따르면 “지구상의 물질적인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언젠가는 극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sup>12)</sup>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지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힐 것이라는 뜻이다. 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재 활용이 중요한데, 현재 금속의 재생효율이 30%인 점을 생각하면, 에너지의 완전한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단지 쓰레기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프킨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엔트로피가 최소인 상태, 그러니까 집중도가 가장 높고 유용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가 가장 질서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엔트로피 값이 최고인 상태, 그러니까 유용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확산된 상태는 가장 무질서한 상태이다.<sup>13)</sup>

이 같은 리프킨의 말을 경청할 경우, 우리는 『황무지』와 엔트로피를 연계하여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이 시에 나타난 무질서는 곧 이 시에 나타난 엔트로피 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값이 높은 엔트로피 값은 또한 이 시에 나타난 쓰레기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현대 물질 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엔트로피 값의 증가를 야기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이 시에서 쓰레기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 이 시에 나타난 쓰레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증가된 엔트로피 값이 드러내는 생태계의 재앙으로 읽힐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를 지금까지의 읽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읽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맞이 한 셈이다.

---

12) 리프킨, 『엔트로피』, 54쪽.

13) 리프킨, 『엔트로피』, 60쪽.

### 3. 『황무지』에 나타난 쓰레기의 증가와 생태 파괴

『황무지』가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생태계의 파괴이다. 생태계의 파괴가 이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생태학(生態學)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동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이 1866년에 고안해 낸 용어로, 그는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동물이 무기적인 환경과 유기적인 환경과 맺는 총체적인 관계를 규명한다. 생태학은 따라서 무엇보다도 동물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맺게 되는 다른 동물과 식물과의 이롭거나 해로운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간단히 말하면 생태학은 다윈이 생존 경쟁이라는 말로 지칭한 조건 하에서 야기되는 모든 복잡한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sup>14)</sup>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헤켈이 말하는 생태학은 유기체로서의 생물뿐만 아니라 무기체로서의 무생물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생태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공기, 물, 토양 등의 관계까지가 모두 생태학의 범위에 든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각기 다른 생물과 무생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1860년대에 나타났음

---

14) "By ecology we mean the body of knowledge concerning the economy of nature — the investigation of the total relation of the animal both to its inorganic and to its organic environment; including above all, its friendly and inimical relations with those animals and plants with which it comes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tact — in a word, ecology is the study of all those complex interrelations referred to by Darwin as the conditions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Qtd. in Bate, p. 36.



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당시만 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었다. 또한 엘리엇은 이 단어를 알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바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극심한 생태 파괴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혜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는 엘리엇이 이 시에서 보여주는 생태의 파괴를 보기로 하자.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sup>15)</sup>

이 시의 이 같은 시작은 초서(1340?-1400)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의 처음에 나오는 「전체 서시」를 패러디한 것이다. 초서의 작품은 춥고 길던 겨울이 지나고 대지가 온통 생명의 봄기운으로 가득 찰 때, 순례객들이 캔터베리 대성당에 모여 순례를 떠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초서의 이야기는 활력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황무지』의 처음에 나오는 묘사에는

15)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Eliot,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S. Eliot*, p.

61. 이후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CPP로 줄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여기서는 초서의 작품에 나오는 이 같은 봄의 활기찬 풍경이 기대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돼 있다. 따라서 잘 잊게 해주는 눈이 대지를 덮었던 겨울이 봄보다 오히려 따뜻했노라고 화자(話者)는 말한다. 이 같은 묘사는 1차 세계대전 후의 폐허화된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이는 또한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키게 한 핵폭탄이 야기시키는 핵겨울의 재앙을 미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파괴된 생태계의 재앙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 시의 처음에 나오는 묘사가 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이 시에 나오는 대부분의 묘사는 구체적인 생태 파괴의 현장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이처럼 생태 파괴의 장면들이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시가 런던이라는 현대의 거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과다하게 밀집된 인공적인 소비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에서는 집중도가 높고 유용한 에너지가 소진되어 무질서하고 비가역적(不可逆的)인 에너지인 쓰레기가 대량 생산된다. 런던의 템즈강가에 엔트로피로서의 비가역적인 쓰레기가 널려 있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강물 위엔 빈 병도, 샌드위치 찢던 종이도  
 명주 손수건도, 마분지 상자도 담배 꺾초도  
 그 밖의 다른 여름밤의 증거품도 아무것도 없다.<sup>16)</sup>

엘리엇이 이처럼 열거한 “부정적인 목록”<sup>17)</sup>은 템즈 강변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더러운 쓰레기로 뒤덮여 있음을 역설적(逆說的)으로 강조할 뿐

16) “The river bears no empty bottles, sandwich papers,  
 Silk handkerchiefs, cardboard boxes, cigarette ends  
 Or other testimony of summer nights.” Eliot, CPP, p. 67.

17) “the negative catalogue,”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71.

이다. 이 같은 엘리엇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 “『황무지』는 이처럼 쓰레기에 대한 매력과 혐오감을 동시에 드러낸다.”<sup>18)</sup> 이 시에 드러난 쓰레기에 대한 양가 감정(兩價感情)은 “이 시가 대중 문화의 천박함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서, 이 시는 이러한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19)</sup> 엘리엇이 이처럼 천박하고 불결한 것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 자신의 무의식 속 깊숙한 곳에 억압되어 있던 욕망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의 억압된 욕망의 표출은 그에게는 일종의 정신적인 카타르시스(淨化)로도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가 단지 역겨움의 대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엘리엇에게 있어 쓰레기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팩시밀리 판에 나오는 프레스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엘리엇이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아주 잘 보여준다.

끓고 있는 차를 식게 놔두고  
 프레스카는 다급해진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살그머니 빠져 나간다.  
 거기서 그녀는 리차드슨의 통속 소설을 읽으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힘들지 않게 진행시킨다.<sup>20)</sup>

위에 인용한 프레스카의 배변 장면은 대단히 역겹게 묘사돼 있다. 프레스카

18) “*The Waste Land* thus bespeaks a simultaneous fascination with, and revulsion from, waste,”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71.

19) “the poem responds to what it sees as the cheapening of mass culture, towards which it is simultaneously fascinated and repelled,”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71.

20) “Leaving the bubbling beverage to cool,  
 Fresca slips softly to the needful stool,  
 Where the pathetic tale of Richardson  
 Eases her labour till the deed is done.” Eliot, Facsimile, p. 23.

의 배설물은 아주 혐오스러운 쓰레기일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또한 쓰레기라는 사실을 이 묘사는 강조하고 있다. 그녀가 용변하면서 읽는 소설이 리처드슨의 소설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녀의 쓰레기 같은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프레스카의 용변이 한 여자만의 개인적인 용무라면, 타이피스트와 부동산 중개소 사원이 대낮에 행하는 성유희(性遊戱)는 그 역겨움의 정도가 프레스카의 경우보다 더 심하다. 우선 타이피스트와 부동산 중개소 사원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지 일회용(一回用) 인물들임을 보여준다. 타이피스트라는 직종은 타자기가 발명된 후, 그 때까지 필기구에만 의존하던 필사(筆寫)가 기계에 의해 행해지면서 생긴 새로운 직종이다. 이전까지의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필사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타자기가 발명되고, 이러한 작업을 전담하는 타이피스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타이피스트는 생각이 배제된 기계적인 작업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필사라는 작업이 단지 육체 노동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체 노동의 가치 또한 함께 추락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이피스트의 작업은 기계 문명에 의해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된 ‘글쓰기’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자기는 단지 이 같은 글쓰기라는 작업이 육체 노동의 차원으로 전락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타자기는 기능성이 강조된 생활 용품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그것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간에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인 작업에 불과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능화된 일상 용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능성만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가 기능성에 의해 평가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이 인간이 만든 물건에 의해 영향 받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에 나오는 타이피스트가 쓰는 물건들은 단순히 그녀의 일상생활의 한 측면을 보여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녀의 사고 방식의 작동을 보여준다. 그녀의 성격 또한 그녀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의 기능화되고 일회적인 측면을 아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일회용품들로서 사용 가치가 소진되면 쓰레기가 되어 엔트로피로

전락한다. 이 같은 사실은 엘리엇이 타이피스트를 묘사하는 데 있어 그녀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열거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차(茶) 시간에 돌아온 타이피스트가 조반 설거지를 하고  
 스토브를 켜고 깡통 음식을 늘어 놓는다.  
 창 밖으로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마르고 있는  
 그네의 콤비네이션 속옷이 위태롭게 걸려 있다.  
 (밤엔 그네의 침대가 되는) 긴 의자 위엔  
 양말짝들, 슬리퍼, 하의, 코르셋이 쌓여 있다.<sup>21)</sup>

타이피스트와 청년이 하는 성행위 자체가 역겨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행위가 끝난 후 이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인간의 성행위를 극도로 혐오스럽게 만든다. 인간의 성행위는 우선적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의 성행위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성행위에서 이 같이 무거운 목적성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성행위는 이성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나 애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성행위가 끝난 후 이들 남녀가 보여주는 행동은 이들이 서로에게 최소한의 동물적인 성적 매력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한 성행위 자체가 단지 쓰레기 같은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불러 일으킨다. 특히 타이피스트의 경우는 이 같은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 일으킨다. 이같은 느낌은 다음과 같은 묘사에 의해 전달된다.

---

21) "The typist home at teatime, clears her breakfast, lights  
 Her stove, and lays out food in tins.  
 Out of the window perilously spread  
 Her drying combinations touched by the sun's last rays,  
 On the divan are piled (at night her bed)  
 Stockings, slippers, camisoles, and stays." Eliot, CPP, p. 68.

그녀는 돌아서서 잠시 거울을 들여다본다.  
애인이 떠난 것조차 거의 의식치 않는다.  
머리 속에는 어렴풋한 생각이 지나간다.  
“흥 이제 일을 다 치렀으니 좋아.”<sup>22)</sup>

타이피스트의 행동이 성행위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감을 드러낸다면, 팩시밀리 판 『황무지』에서는 청년은 성행위에 대한 역겨움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그는] 생색내는 마지막 키스를 해 주고  
더듬거리며 내려간다, 불 꺼진 계단을.  
그리고 마구간이 있는 모퉁이에서  
오줌을 누고 침을 뱉으려고 잠시 머뭇거린다.<sup>23)</sup>

프레스카의 용변이 역겨움을 자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청년의 배뇨와 침 뱉는 행위 또한 불쾌감을 일으킨다. 그의 이 같은 행위는 그가 한 성행위 자체가 그의 배뇨와 침뱉는 행위와 같은 정도의 역겨운 것임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들의 성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이는 단지 쓰레기를 만드는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행위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청년에게 있어 타이피스트는 단지 성행위라는 일회적인 기능만을 가진 존재이며 청년과 타이피스트와의 성행위는 단지 쓰레기를 생산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

22) “She turns and looks a moment in the glass,  
Hardly aware of her departed lover;  
Her brain allows one half-formed thought to pass:  
‘Well now that’s done: and I’m glad it’s over.’” Eliot, CPP, p. 69.

23) “-[He] Bestows one final patronising kiss,  
And gropes his way, finding the stairs unlit;  
And at the corner where the stable is,  
Delays only to urinate, and spit.” Eliot, Facsilime, p. 35.

있다.

『황무지』에 나타난 쓰레기의 충격적인 증가는 살아 있는 인간[타이피스트]의 쓰레기화(化)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쓰레기화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물과 인간을 구별짓는 몇 가지 특징 중의 하나로 인류학자들은 인간만이 가지는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禮遇)로서의 장례를 들고 있다. 장례가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 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은 사람들이 경비와 노력을 들여 장례를 치루는 것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사회에서는 어느 곳이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우인 장례조차 치뤄지지 않은 채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으며, 이들의 뼈는 쥐들의 장난감이나 먹이가 돼 있다. 이는 주검의 쓰레기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시에서는 이 같은 쓰레기로서의 시체의 묘사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인간의 주검이 단지 쓰레기 이상의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묘사를 살펴 보자.

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뼈를 잃은  
 쥐들의 골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sup>24)</sup>

쥐들의 발에 채이는 주인을 잃은 죽은 자들의 뼈들이 널려 있는 묘사는 인간의 주검을 비열하고 더러운 쥐와 동일시 함으로써 주검 자체가 곧 쓰레기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묘사는 반복적으로 되풀이 됨으로써 사람의 주검이 쓰레기가 되는 단계를 넘어 주검이 쓰레기보다도 못하다는 인상을 깊게 한다.

쥐 한 마리가 흙투성이 배를 끌면서  
 강둑 풀밭을 슬며시 기어갔다.  
 [중략]

24) "I think we are in rats' alley

Where the dead men lost their bones." Eliot, CPP, p. 65.

흰 시체들이 발가벗고 낮고 습기찬 땅속에  
뼈들은 조그맣고 낮고 메마른 다락에 버려져서  
해마다 쥐의 발에만 채어 덜그럭거렸다.<sup>25)</sup>

쥐의 발에 채이고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죽은 사람의 뼈가 쓰레기보다도 못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엘리엇은 뼈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모든 것의 쓰레기화와 인간의 쓰레기화, 아니 인간의 주검이 쓰레기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현대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쓰레기 증가의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황무지』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지만, 그러나 이 같은 황무지, 또는 쓰레기의 땅에서의 무질서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 온다. 이 한탄의 목소리는 전설적인 어부왕(漁夫王)의 목소리이다.

나는 기슭에 앉아  
낚시질했다. 등뒤엔 메마른 들판.  
적어도 내 땅만이라도 바로잡아 볼까?  
런던 교(橋)가 무너진다 무너진다.<sup>26)</sup>

---

25) "A rat crept softly through the vegetation  
Dragging its slimy belly on the bank  
.....  
.....  
White bodies naked on the low damp ground  
And bones cast in a little low damp ground  
And bones cast in a little low dry garret,  
Rattled by the rat's foot only year to year." Eliot, CPP, p. 67.

26) "I sat upon the shore  
Fishing, with the arid plain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Eliot, CPP, p. 74.



어부왕은 유용한 에너지가 쓰레기가 되어 엔트로피 상태가 된 것을 다시 정돈하여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의 자세로 보아 그가 이러한 일에 전념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기슭에 앉아 낚시질을 하면서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뿐이다. 더구나 그가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런던 교가 무너진다는 노래 소리는 그의 이러한 탄식이 아무런 효과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에서 재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희미하게나마 쓰레기만으로 덮여 있는 쓰레기 땅에 생명의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가 보여주는 풍경이 온통 쓰레기 투성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꽃은 비록 가냘픈 것이기는 하지만, 더더욱 고귀하다. 이 꽃은 히아신스이다.

“일년 전 당신이 저에게 처음으로 히아신스를 줬지요  
다들 저를 히아신스 아가씨라 불렀어요.”<sup>27)</sup>

히아신스꽃이 “풍요제에서 부활한 신의 상징”<sup>28)</sup>이라는 사실은 이처럼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쓰레기 땅에도 부활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높은 엔트로피 값만을 가진 쓸모없는 쓰레기가 다시 유용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길을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사중주』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 4. 직선적 시간에서 순환적 시간으로: 『네 사중주』에 나타난 쓰레기에 대한 대안적 사고

『황무지』로 대표되는 엘리엇의 초기 시에 나타난 많은 쓰레기의 이미지는

27) “You gave me hyacinths first a year ago;  
They called me the hyacinth girl.” Eliot, CPP, p. 62.

28) 황동규, 『황무지』, 50쪽 주) 12.

그의 후기시에 이르면 그 모습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이 같이 달라진 엘리엇의 후기시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네 사중주』이다. 이 두 시는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시들이다. 그러나 이 두 시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각기 다르다. 『황무지』는 그 시 안에 포함된 정보(情報)가 생경(生硬)하기 때문에 읽기 힘들었다면, 『네 사중주』는 쉬운 언어로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깊이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전자는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주제에 대한 천착(穿鑿)이라면, 후자는 심층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천착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철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와 신비주의까지를 아우르는 초월에 대한 명상을 의미한다. 또한 이 두 시의 차이는 시간에 대한 사색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엘리엇은 후기시에서 [중략] 전기 시에 나타나는 많은 쓰레기의 이미지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네 사중주』에 나오는 『풍과 죽음』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생기는 적절한 때의 범주 밑으로 들어간다”<sup>29)</sup>고 말한다.

이 같은 암스트롱의 지적은 정곡(正鵠)을 찌르는 핵심적인 말이다. 왜냐 하면 이 두 시의 차이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시간에 대한 엘리엇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암스트롱의 지적은 그만의 개인적인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비평가들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기쉬 또한 “『네 사중주』의 근본적인 특징은 달관(達觀)이라는 종교적인 전통에 기초한 몰생명적(沒生命的)이고 몰시간적(沒時間的) 이상의 추구다”<sup>30)</sup>라고 말하면서 암스트롱과 비슷한 견해를 드러낸다.

기쉬는 『네 사중주』에 나오는 시간과 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9) “Eliot’s late poetry ... seeks to eliminate the wasteful flows of early poetry, so that ‘dung and death’ are subsumed to their proper time,” Armstrong, *Modernism, Technology, and the Body*, p. 74.

30) “[I]ts [Four Quartet’s] essential character [is] an aspiration for a non-living, non-temporal ideal based on a religious tradition of renunciation,” Gish, *Time in the Poetry of T.S. Eliot*, p. 91.

『네 사중주』는 시간과 영원의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이 시의 각기 다른 시편들은] 차별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리를 기딩」의 시작(詩作)원리는 「번트 노튼」의 시작 원리와는 다르다. 그것은 「리를 기딩」의 시작 원리는] 시간과 영원의 대비가 아니라 이 둘의 융합이다.<sup>31)</sup>

이렇게 본다면 『황무지』와 『네 사중주』의 차이는 이 두 시가 보여주는 시간관의 차이로 집약될 수 있다.

『황무지』는 기독교적인 시간관이 지배하는 세계의 폐해와 해악을 보여준다. 기독교적인 시간의 특징은 직선적인 진행에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시간은 비가역적(非可逆的)이다. 따라서 시간이 진행한다는 것은 단지 에너지가 높은 엔트로피 값을 향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 불가능하고 무질서한 쓰레기의 축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 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일방통행적이고 비가역적이며 직선적인 시간의 진행은 다른 말로 하면 「벡터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벡터적인 시간에 대해 트레몽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적인 시간이 직선적인 반면 희랍적인 시간은 순환적이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시간이 직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그 이유는 시간은 공간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제시된 기독교적인 시간관이 타당한 이유는 기독교적인 시간관에 따르면 창조는 유일하고 확정적인 종말을 향해 시간이 비가역적(非可逆的)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기독교적 시간은 벡터적인 시간이다.<sup>32)</sup>

31) "The *Quartets* have a different structure, based on a changing and developing view of time and eternity. The 'doctrine' of 'Little Gidding' differs from that of 'Burnt Norton'; it is not an opposition but a union of temporal and eternal," Gish, *Time in the Poetry of T.S. Eliot*, p. 95.

32) "It has been said that Christian time was linear whereas Hellenic time was cyclic. To say that time is linear is obviously an unfortunate expression, since time is precisely not spatial. But what remains correct under the unhappy term, is that

그렇다면 우리는 『네 사중주』에 나타나는 순환적인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엘리엇은 『네 사중주』에서 『황무지』에서와는 달리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이 두 시에 나타나는 그의 서술 전략의 차이는 「이스트 코우커」의 처음에 시간에 대한 서술을 맨처음에 놓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한다.

나의 처음에 나의 끝이 있다.<sup>33)</sup>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엇은 시간을 전경화(前景化)하여 자신이 가진 시간에 대한 생각을 전면으로 부각시킨다. 이처럼 이 시의 처음에 시간을 위치시킴으로써 그는 시간이 이 시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물론 「끝」이라고 번역한 end는 또한 「목적」이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므로, 이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의 처음에 나의 끝이 있고 또한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풀어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시간이라는 단어는 『네 사중주』에 아주 많이 나오지만, 「이스트 코우커」에 나오는 이 구절은 「리틀 기딩」에서도 어휘는 약간 다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은채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끔은 끝이고  
끝내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끝은 우리가 시작한 곳이다.<sup>34)</sup>

---

Christian time measures a creation irreversibly directed towards a unique and definite end. Christian time is vectorial.” Tresmontant, *Christian Metaphysics*, p. 68.

33) “In my beginning is my end.” Eliot, CPP, p. 177.

34) “What we call the beginning is often the end  
And to make an end is to make a beginning.  
The end is where we start.” Eliot, CPP, p. 197.

엘리엇은 시작과 끝을 같은 지점에 위치시킴으로써 기독교의 벡터적인 시간을 파기하고 신화적인 순환의 시간을 그 자리에 대신 얹혀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만을 양산하던 시간은 이제 재생과 부활의 시간이 된다. 이 같은 대표적인 예가 『황무지』에서 소모적이고 일회적이며 무의미하고 쓰레기 같던 타이피스트와 부동산 중개 회사원의 성행위가 『네 사중주』에 오면 성스러운 결혼으로 승화된다. 이처럼 성스러운 결혼은 「이스트 코우커」에서는 다음과 같이 승화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름 한 밤중에 음악 소리가 들린다.  
 은은한 피리소리와 작은 북이 내는 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로 춤추는 것을 보리라.  
 남녀가 한데 어울려  
 춤추는 그 모습은 남녀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  
 장중하고 적절한 혼배성사(婚配聖事).<sup>35)</sup>

이 같은 축복과 성사(聖事)로서의 결혼에는 노래와 춤이 있어 있다. 흥겨운 노래와 춤은 『황무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이미지이다. 이처럼 『네 사중주』에서는 직선적인 시간이 순환적인 시간으로 바뀌면서 노래와 춤이 나타난다. 이 같이 바뀐 시간에 대해 엘리엇은 「이스트 코우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박자 맞추고,

---

35) "On a summer midnight, you can hear the music  
 Of the weak pipe and the little drum  
 And see them dancing around the bonfire  
 The association of man and woman  
 In daunsinge, signifying matrimonie —  
 A dignified and commodious sacrament." Eliot, CPP, pp. 177-8.

곡조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들의 살아 있는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계절 속에서도  
계절과 성좌의 시간이  
채유(採乳)와 수확의 시간이  
남녀 교합의 시간이나  
동물의 교배 시간이 [꼭 같다].<sup>36)</sup>

직선적인 시간이 순환적인 시간으로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황무지』에서는 죽어 있던 계절이 이제는 부활하여 살아 있는 계절이 된다. 죽어 있던 계절이란 불모(不毛)의 쓰레기만을 쌓이게 하는 데 비하여 살아 있는 계절은 순환적인 시간의 리듬에 따라 엔트로피 값이 높은 쓰레기가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뀐다. 이는 우유 짜기와 인간의 짹짹기, 그리고 동물의 짹짹기 등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같은 계절의 시간은 우주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짐승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그리고 우주의 시간이 모두 순환적인 시간 속에서 화음을 이루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게 되는 셈이다.

순환적인 시간이 가져온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황무지』에 나타난 무수한 시체의 이미지와 또한 프레스카의 배변 묘사에 나타난 쓰레기로서의 인분(人糞) 묘사는 「이스트 코우커」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짧은 묘사로 압축된다.

---

36) "Keeping time,  
Keeping the rhythm in their dancing  
As in their living in the living seasons  
The time of the seasons and the constellations  
The time of milking and the time of harvest  
The time of the coupling of man and woman  
And that of beasts." Eliot, CPP, p. 178.

똥과 죽음<sup>37)</sup>

그렇다면 『황무지』에서 것처럼 많던 인분과 주검의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간략하고 단순화됐을까? 이는 『황무지』에서는 주검과 인분이 단지 엔트로피 값이 높은 무질서한 생태계의 쓰레기였다면, 『네 사중주』에 와서는 이들은 순환적인 시간 속에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황무지』에서의 언어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엔트로피 값이 높은 쓰레기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편이다. 반면 『네 사중주』에서 쓰인 언어는 엔트로피가 아주 낮고 쓸데없는 군더더기(쓰레기)가 제거된 절제된 언어이다. 『네 사중주』에서 ‘똥과 죽음’이라는 묘사가 바로 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네 사중주』의 언어가 거의 미니멀리즘의 언어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것은 이 시가 보여주는 세계가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의 세계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황무지』에서는 주검이 뼈와 쥐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 것에 비하여 『네 사중주』에서는 ‘죽음’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 묘사돼 있다. 주검이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묘사된 것은 주검이 『황무지』에 나타난 것처럼 쓰레기가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았음을 의미한다. 쓰레기가 쓰레기인 것은 그것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여 쓸모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 사중주』에 나오는 ‘죽음’은 우주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미 쓰레기가 아니다. 우주의 질서 속에서는 생성이 하나의 순환적인 시간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만물은 태어나고, 성장하여, 죽는다는 궤적을 그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죽음은 곧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순환 원칙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똥과 죽음’은 순환의 원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실체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똥과 죽음’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승화됐다고 말하는 근본 요지이다.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엔트로피가 높던 쓰레기인 주검(시체)을 『네 사중주』에서는 이처럼 엔트로피가 낮은 ‘똥과 죽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를 순환적인 시간 속으로 환원시킨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보여주던

---

37) “Dung and death,” Eliot, CPP, p. 178.

무질서는 순환적인 신화적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신화적 시간은 그러나 초월적인 시간이기보다는 자연과 인간과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사계절이며 동시에 우주 질서의 시간인 셈이다. 이리하여 '똥과 죽음'은 더 이상 『황무지』에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우주의 순환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 5. 맺는 말

탈산업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일회용품의 사용과 에너지의 과소비로 인한 쓰레기의 증가이다. 쓰레기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쓰레기는 엔트로피 값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유용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엘리엇의 시에서 이 같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함의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초기시인 『황무지』와 후기시인 『네 사중주』가 쓰레기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관점에서 읽힐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전자가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진 쓰레기의 무질서와 이의 해악을 드러낸다면, 후자는 이의 재활용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전자에서 보이는 무질서가 직선적이고 벡터적인 시간의 진행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후자에서는 이 같은 직선적인 시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순환적인 시간으로의 전이를 시사한다. 순환적인 시간은 계절의 순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시간이며 동시에 우주의 질서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시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순환적인 시간으로의 회귀는 따라서 자연, 인간, 우주를 하나로 이어주는 자연적인 시간이며, 동시에 이 모두를 우주적인 질서 속으로 귀속시키는 우주적인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21세기에 엘리엇의 시를 다시, 그리고 새로 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인용한 문헌

- 리프킨, 제레미. 『엔트로피』. 이창희[번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0.  
황동규[번역]. 『황무지』. 서울: 민음사, 1991.
- Bate, Jonathan. *Romantic Ecology: Wordsworth and the Environmental Tra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 Eliot, T.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S. Eliot*. London and Boston, Faber and Faber, 1978.
- . *The Waste Land: A Facsimile and Transcript of the Original Drafts Including the Annotations of Ezra Pound*. Ed. Valerie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1.
- Ellmann, Maud. *The Poetics of Impersonality: T.S. Eliot and Ezra Pound*. Brighton, UK: Harvester, 1987.
- Gish, Nancy K. *Time in the Poetry of T.S. Eliot*. London: Macmillan, 1981.
- Sampson, George. *The Concise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3rd ed. London: Cambridge UP, 1982.
- Tresmontant, Claude. *Christian Metaphysics*. Tr. Gerard Slevin. New York: Sheed and Ward, 1965.
- Tich, Cecilia. *Shifting Gears: Technology, Literature and Culture in Modernist America*. Chapel Hill, NC: U of North Carolina P, 1987.

**ABSTRACT**

---

Eliot, Entropy, and Waste: An Ecological Reading of *The Waste Land* and *Four Quartets*

Chong-Ho Lee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Waste Land* in 1922, the poem has become the center of controversy. One of the reasons why it has enjoyed such a variety of diverse critical opinions is that it is hard to definitely find the message(s) in it. When the new criticism ruled the day, it was the new critics' favorite poem to show how new criticism worked. No amount of critical endeavor, however, can exhaust the rich significance of the poem. When the so-called postmodernism came along, the poem has once again become a favorite target to show how postmodernist the poem is.

The poem can have a re-birth as an ecological poem in the 21st century. What I am going to show in this essay is how much ecologically-concerned the poem is. This can be shown by looking at the title, *The Waste Land*, itself. "Waste" in this case can mean garbage that the technologically-developed world has to produce. As technology develops, the energy available can become unusable, proliferating high degree of entropy, a term for useless energy. In this respect, the poem is a litany of negative catalogue of waste.

We can naturally ask whether there is any way out of the present mess of waste

we see around u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found in *Four Quartets*. Useless energy can turn into useful one if we find a way to recycle it. What the *Quartets* shows us is exactly the way how we could go about this business. What we could do to reverse the vicious circle is to turn the linear progression of time into a cyclical time.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in the *Quartets*. By saying that “in my beginning is my end,” Eliot shows that the time in the *Quartets* is a cyclical one. The cyclical time is that of the mythology and paradise. In this poem Eliot shows how we can restore harmony in our lives by turning the linear progression of time into a cyclical one.

